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NVTS.US)

'약속'에서 '검증'으로, 완벽을 선반영한 주가

- 'Navitas 2.0' 체질 개선과 NVIDIA 서사 기반의 상반기 주가 랠리
- 주가는 펀더멘털과 분리되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까지 선반영함
- 하반기는 '약속'에서 '검증'으로 바뀌는 시기, 실적 및 디자인인 확인 필수

모바일에서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NVTS)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인 GaN(질화갈륨)과 고전압 SiC(탄화규소)를 설계하는 미국 팹리스 기업이다. 2024년까지 스마트폰 급속충전기용 GaN 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2025년부터 모바일·저가 소비자 시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AI 데이터센터, 에너지·그리드 인프라, 퍼포먼스 컴퓨팅, 산업 전동화 등 4개 고전력 시장으로 전사 역량을 재배치하는 "Navitas 2.0" 전환을 진행 중이다.

동사의 강점은 GaN 과 고전압 SiC 를 동시에 보유한 극소수 업체 중 하나라는 점이며, 향후 AI 데이터센터의 800V HVDC 전환에서 그리드~랙 구간(SST, 고전력 PSU)은 SiC 가, 랙 내부 DC-DC 변환은 GaN 이 담당하는 구조로, 전력 체인 전 구간 커버를 목표로 한다.

NVTS 는 자사의 SAM(공략 가능 시장)이 2025년 약 \$0.3B 에서 2030년 \$3.5B~\$5.4B 로 CAGR 60~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분기 매출 \$8.6M 의 초기 단계 기업이지만, 현금 \$221M·무차입으로 약 3년 이상의 운영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주가 흐름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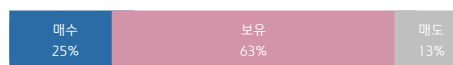
NVTS는 YTD 기준 약 145% 상승하며 52주 저점(\$5.44) 대비 약 4배 수준에 도달했으며, 주가 상승의 동력은 실적보다는 이벤트성 이슈로 인한 바가 크다. 5월 Cyient 라이선스 발표(+21%), NVIDIA 차세대 인프라 발표 수혜(+20%), 6월 NVIDIA MGX 생태계 참여 발표(+23%) 등 보도자료 단위로 20%대 급등이 반복되었다.

다만, 모바일·소비자 중심에서 고전력 산업·인프라 중심으로의 사업 구조 전환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이는 실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분기 매출은 \$8.6M으로 가이드نس 상단을 상회했다(QoQ +18%, YoY -39%). 외형 감소는 모바일 축소에 따른 것으로, 고전력 시장 매출은 YoY +35% 성장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그리드 합산 매출은 QoQ +50% 성장했다. Non-GAAP 매출총이익률은 39.0%(+30bp), 영업손실은 \$11.7M 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공식 디자인인 발표는 아직 없으며, 경영진은 "백로그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6.06.10): \$20.50
 목표주가 컨센서스: \$14.46

▶ 투자이견 컨센서스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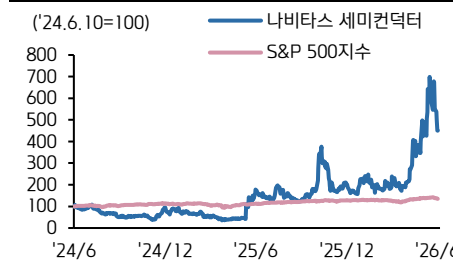
산업분류	반도체 & 반도체 장비
S&P 500 (06/10)	7,266.99
현재주가/목표주가	20.50 / 14.46
52주 최고/최저 (\$)	34.17 / 5.44
시가총액 (천\$)	5,489,549
유통주식 수 (천)	240,243
일평균거래량 (3M)	32,834,090

Earnings & Valuation

(천 \$)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83,302	45,916	42,314	72,900
영업이익	-49,692	-45,968	-44,857	-35,850
OPM(%)	-59.7	-100.1	-106.0	-49.2
순이익	-44,248	-41,610	-38,914	-32,829
EPS	-0.24	-0.20	-0.17	-0.14
증가율(%)	-	적자축소	적자축소	적자축소
PER(배)	-	-	-	-
PBR(배)	1.9	3.7	13.9	15.9
ROE(%)	-23.2	-29.5	-9.5	-19.3
배당수익률(%)	-	-	-	-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220.0	25.5	150.5	182.4
S&P Index	7.9	-0.2	7.3	22.3



자료: Bloomberg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6-10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밸류에이션: 가장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선반영한 주가

현재 시가총액 \$5.0B는 TTM(지난 12개월) 매출 \$40.5M의 약 123배, 2027년 컨센서스 매출(~\$66M)의 약 76배에 해당한다. NVTS가 언급한 손익분기 매출(분기 \$35M+, 연 \$150M)에 도달하더라도 P/S 약 33배로, 현재 가격은 2027년 이후 동사가 그리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사실상 확정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글로벌 IB 컨센서스 평균 목표가는 \$14.46로, 현재 주가 대비 약 -29% 하회하는 수준이다. 동사 주가는 지난 5월 26일 종가 기준 \$31.8까지 급등하며 일부 IB의 가장 낙관적인 강세 시나리오 목표가(\$22~23)마저 돌파한 바 있으나, 이후 가파른 조정을 거치며 현재는 \$20.5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이다. 즉, 시장이 그럴 수 있는 가장 낙관적 서사의 최상단을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갔던 주가가 점차 컨센서스 적정가치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요 IB의 컨센서스는 NVTS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는 매력적이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향후 추가적인 동력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주가 업사이드도 있을 수 있겠으나, 확실한 지점은 현재 밸류에이션은 주가의 지지 논리가 아니라 부담 요인이며, 주가는 펀더멘털과 분리되어 움직이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지지한 내러티브

상반기 NVTS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아래 요인들의 결합이다.

1) AI 전력 병목 테마 수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과 800V 아키텍처 전환이 시장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NVTS는 이 흐름 속에서 시장 내 보기 드문 'GaN+SiC Pure Play' 기업이라는 독보적인 희소성을 선점했다.

2) 견고해진 'NVIDIA 연결고리': 3월 GTC에서의 800V 전력 보드 데뷔, 5월 NVIDIA 파트너 세리머니, 6월 COMPUTEX MGX 생태계 쇼케이스로 이어진 일련의 모멘텀은 시장에 "NVIDIA 생태계 편입"이라는 강력한 서사를 각인시켰다.

3) 공급이 만든 숏커버링 펄리: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공매도 누적이 호재 발표 때마다 숏커버링으로 전환되며 주가 상승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높아진 주가는 다시 동사의 자금 조달 여력을 개선하고 고객사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본질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재료들의 공통된 성격이다. 전시·데모·생태계 참여 등은 모두 당장 구체적인 매출이 동반되지 않는 '약속 단계'의 재료들이다. 역설적으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숫자를 증명할 필요도, 반증당할 위험도 없는 '틀릴 수 없는 재료'였기에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숫자가 아닌 기대감으로 달린 만큼, 해당 내러티브의 신선도는 이제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반기 NVT 내러티브의 본질적인 변화는 재료의 성격이 '약속'에서 '검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처음으로 '틀릴 수 있는(실패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벤트'들을 직접 증명해 내야 하는 구간이다.

1) 8월 초 (2Q26 실적 발표): 매출 가이드스(\$10M) 달성 여부와 AI 인프라 부문의 고성장세(QoQ +50% 이상) 지속 여부가 1차 시험대이다.

2) 연말 ~ 2027년 초 (800V 1단계 램프업): SiC 기반 고전력 PSU(전력공급 장치)의 본격적인 램프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3~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백로그(수주잔고)와 첫 디자인윈(Design-win)의 가시화 여부가 판정될 전망이다.

3) 밸류에이션 평가 기반의 변화: 이 시기 모바일향 매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는 시장이 동사의 실적을 온전히 '고전력 사업 부문' 가치로만 평가하는 첫 번째 구간이 됨을 의미한다.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긍정적 시나리오의 트리거로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나 전력 OEM의 사명이 명시된 첫 공식 디자인윈 발표, 400V TPU 랩 등 NVIDIA 외 고객사 관련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전, 그리고 수주 가시성을 증명할 백로그 수치 공개 등이 꼽힌다.

반면 구조적으로 유의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한다. 지난 5월 등록된 \$250M 규모의 셸프(Shelf Registration)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유상증자 유인이 커지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 아울러 8월 실적 발표 전까지 이어질 여름철 재료 공백기는 모멘텀 수급에 가장 취약한 구간이 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6월 말 예정된 러셀 리밸런싱에 따른 자금 유입이 수급 측면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리스크 요인: 밸류에이션 부담 속 도래하는 다각도의 검증대

수급 측면에서는 여름철 재료 공백기에 따른 모멘텀 이탈과 증자(Shelf)로 인한 지분 희석이 단기 최대 변수이다. 사업적으로는 2분기 이후 가이드스 미스 시 성장 내러티브가 즉각 훼손될 수 있으며, 인피니언·ST·르네사스 등 대형 IDM사들의 GaN 시장 진입으로 초기 우위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아울러 2027년 파운드리 전환(TSMC→GF)에 따른 고객사 재검증 및 램프업 지연 리스크, 800V 아키텍처 채택 속도의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재무 측면에서는 분기당 1,100만~1,600만 달러의 현금 소진이 지속되어 2028년까지 흑자전환이 어렵고, 자산의 44%가 영업권 및 무형자산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종합하면 동사는 사업 전환의 방향성이 확인되기 시작한 초기 기업이나 주가는 기대감을 크게 앞서 있으며, 하반기는 그 격차가 검증대에 오르는 첫 구간이다. 따라서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선호 투자자에 한해 제한적인 접근이 적합하다.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FY1Q26 ('26.01.01~03.31)

구분	FY1Q26		컨센서스 비교		YoY 비교		QoQ 비교	
	(천 \$)	발표치	컨센서스	차이	FY1Q25	성장률	FY4Q25	성장률
매출액		8,598	8,258	4.1%	14,018	-38.7%	7,296	17.8%
영업이익		-11,659	-11,833	-1.5%	-11,821	적자축소	-12,052	적자축소
영업이익률		-135.6%	-143.3%	7.7%p	-84.3%	+51.3%p	-165.2%	-29.6%p
순이익		-9,764	-10,525	-7.2%	-11,179	적자축소	-10,451	적자축소
EPS (USD)		-0.04	-0.05	-16.7%	-0.06	적자축소	-0.05	적자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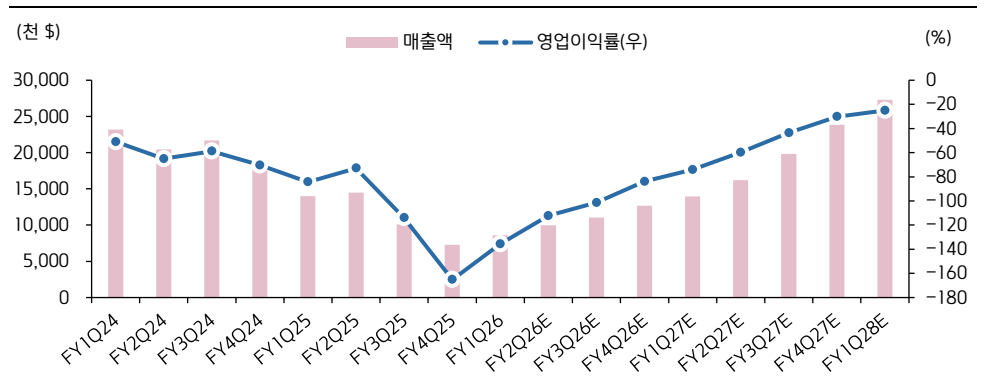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6-10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향후 실적 컨센서스 표

구분	분기 컨센서스				연간 컨센서스				
	(천 \$)	FY2Q26	YoY 성장률	FY3Q26	YoY 성장률	FY26	YoY 성장률	FY27	YoY 성장률
매출액		9,967	-31.2%	11,057	9.3%	42,314	-7.8%	72,900	72.3%
영업이익		-11,183	적자확대	-11,217	적자축소	-44,857	적자축소	-35,850	적자축소
영업이익률		-112.2%	-39.3%p	-101.4%	12.6%p	-106.0%	-5.9%p	-49.2	56.8%p
순이익		-9,850	적자확대	-9,808	적자축소	-38,914	적자축소	-32,829	적자축소
EPS (USD)		-0.04	적자축소	-0.04	적자축소	-0.17	적자축소	-0.14	적자축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6-10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6-10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상세실적표

(천 \$)	FY1Q25	FY4Q25	FY1Q26	YoY(%)	QoQ(%)
[GAAP]					
매출액	14,018	7,296	8,598	-38.7	17.8
매출원가	8,711	4,514	5,361	-38.5	18.8
매출총이익	5,307	2,782	3,237	-39.0	16.4
영업비용	30,631	44,175	31,003	1.2	-29.8
R&D	12,688	12,386	14,567		
SG&A	11,740	10,475	11,252	-4.2	7.4
무형자산상각비용	4,734	4,734	4,734	0.0	0.0
구조조정비용	1,469	16,580	450	-69.4	-97.3
영업이익	(25,324)	(41,393)	(27,766)	적자확대	적자축소
이자비용	(38)	369	264	-794.7	-28.5
배당손익	744	1,161	1,688	126.9	45.4
공정가치변동손실 및 기타손익	8,151	8,281	(7,904)	-197.0	-195.4
세전이익	(16,467)	(31,582)	(33,718)	적자확대	적자확대
법인세 비용	82	(61)	67		
지분법손실	(280)	(294)	0		
순이익	(16,829)	(31,815)	(33,785)	적자확대	적자확대
EPS(달러/주)	(0.09)	(0.14)	(0.15)	적자확대	적자확대
회석 가중평균주수(백만주)	187,784	222,344	229,988	22.5	3.4
[Non-GAAP]					
조정 매출총이익	5,343	2,824	3,354	-37.2	18.8
조정 영업이익	(11,821)	(12,052)	(11,659)	적자축소	적자축소
조정 순이익	(11,179)	(10,451)	(9,764)	적자축소	적자축소
조정 EPS(달러/주)	(0.06)	(0.05)	(0.04)	적자축소	적자축소

자료: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